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마 24:45-51)

The Faithful and Wise Servants

(Matt. 24:45-51)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징조들을 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징조들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며, 사랑이 식어지고,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며, 온 세계가 오염 되어서 천재지변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리는 징조들을 무시한 채 여전히 세속적인 일에만 바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Jesus said that there would be a number of signs in the end of the world, and if you could see the signs, you should know that the Son of Man directly reached the front door. And now, such signs have very obviously been seen in these times. Many false Christs and false prophets have appeared, and you can hear the news of famines, earthquakes, and wars here and there. Love will grow cold, abomination stands in the holy place, and because the world has been polluted, natural disasters have occurred one after another. Nevertheless, we are still very busy with the worldly work, while we ignore the signs that let us know the time of advent.

1.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사도 바울은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전 4:2)고 말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생명을 드려 우리의 말은 바를 감당할 때, 그것을 일컬어 충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충성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계 3:14). 주님은 충성된 분이십니다. 그 분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 사명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알고 깨달은 것을 행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약 3:13).

예수님은 특별히 종에 대해 말씀하시며 충성과 지혜를 동시에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충성되긴 한데 지혜가 부족하면 합당하게 처신하지 못할 것이고, 지혜롭긴 한데 충성스러움이 없으면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2. 악한 종

48절에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를 악한 종이라고 지칭합니다. 악한 종은 주님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세상에 빠져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주인은 생각지 않은 날에 올 것이며 마침내 악한 종은 벌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50-51절).

49절의 동료는 주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악한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박지르지만 할 뿐 필요에 따라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더 빨리 끝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징조를 보여주시며 말세의 때가 가까이 왔고 주님이 문 앞에 서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악한 종처럼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므로 아직은 세상 재미를 더 보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때를 따라 알맞은 양식을 나눠주시는 지혜롭고 착한 종이 되어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의 일을 맡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The faithful and wise servant

Paul the Apostle says, "Now it is required that those who have been given a trust must prove faithful" (1 Cor 4:2).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the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Rev2:10). When we are able to fulfill our duty by sacrificing ourselves, we call it faithfulness. The bible describes Jesus as a faithful man (Rev 3:14). It is Jesus who is faithful. He accomplished his mission by doing his best with the sacrifice of his life. Therefore, we must be faithful servants by following example of Jesus.

If so, what is the meaning of 'wise'? The real wisdom shows that anyone does his deeds in what he knows will realize himself (James 3:13).

Jesus especially says this about his servants, at the same time He emphasizes faithfulness and wisdom. It means that if we are faithful but we are lack of wisdom, we don't behave properly and if we are wise but we are not faithful, it is because we want to go to easy way.

2. The wicked serv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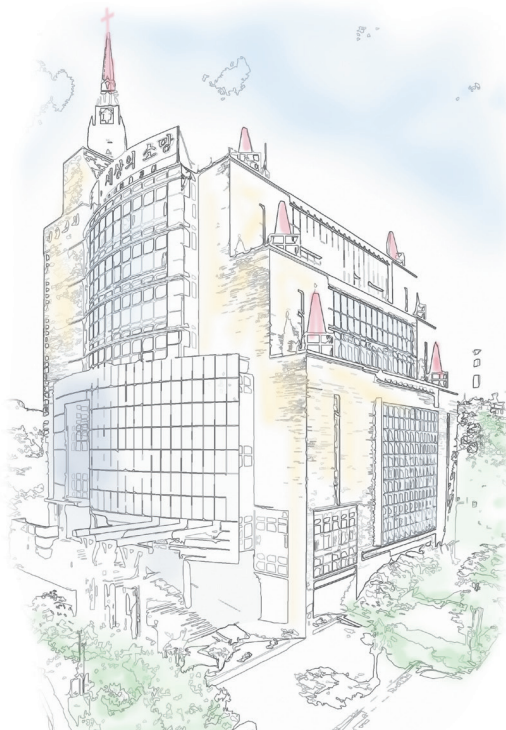
There appears a person who is contrary to a faithful and wise servant in verse 48. Jesus calls him a wicked man. The wicked servant thinks that because Jesus will come late, he will beat his fellow servants, eat and drink and spend their life in their own world. But the master will come at unexpected day. Finally, the wicked servant will be punished, weep in tears, and gnash his teeth (vv 50-51).

The fellow servants in verse 49 are the Lord's people. They only threaten God's people, but they don't share their food with others when they need it. Accordingly, the end of the world will come much earlier than they think.

My beloved Christians,

Now, Jesus continually shows us the signs and says that the end of the world comes near and he stands in front of the door.

Therefore, we never think like the wicked servants that because Jesus stays away for a long time, and have much fun and enjoy our life in the world, but we must be faithful and wise servants. Wherever we are at home, at work, in church, or in the Upper Room, by becoming wise and good servants sharing proper food to a flock of sheep that are given to us as the occasion demands,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be God's people who engage in much more work given by Jesu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5 흥해 작전」 은혜롭게 진행 중

주제 :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라(대상 16:10) / 강사 : 박노철 담임목사
6월6일(토)~25일(목) / 새벽 5시~6시

2015년 흥해작전(본부장 : 이관규 장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라”(대상 16:10)라는 주제로 승전을 위한 진군이 은혜롭게 계속 되고 있다.

6월 6일(토)부터 6월 25일(목)까지 매일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특별새벽기도회는 박노철 담임목사가 인도하고 있다. 흥해를 건너기 위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한편 원거리 교구의 성도들은 각 다락방별로 모닝콜과 카풀을 이용하여 계속 참석을 독려하기 바란다.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 7번 이상 출석하여 2층과

3층 안내석에서 출석 스탬프를 확인 받아 25일 제출하면 출석상을 준다. 흥해작전 백일장 행사는 유아부부터 초등부는 그림 그리기를, 중등부부터 장년부는 간증문을 공모한다. 흥해작전 기간 동안 금요일기도회는 개인적으로 하며, 주일에는 특별새벽기도회를 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이 5시 30분에 새벽기도회가 있다. 6월 20일(토)은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기도의 날"로 영아부 부터 청년1, 2부까지 모두 참석하여 축복기도를 받기 바란다. 매일 아침 8층 만나홀에 간단한 아침식사가 준비된다.



사진 : 손동혁 집사

제 7 회 장로교의 날

- 광복70주년,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어 가는 한국장로교회 -
7월10일(금) 오후3시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



금년도 제7회 장로교의 날 행사는 7월10일(금) 오후3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종로구 대학로3길 29)에서 열릴 예정이며, 2015년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맞아 '사랑으로 교회, 사회, 남북의 통일을 이루어 가는 한국장로교회가 되기 위해 장로교전통 예배를 통해 장로교단의 연합과 일치'를 선언하고 비

전70의 대국민사랑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님 사랑의 나라 국민출애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국장로교 목회자, 장로교 지도자, 일반 성도 1,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교회 이종윤 원로 목사가 설교를 한다. 한국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73)

(문 173) 요엘의 예언이(요엘2:28-32) 오순절에(행2:16-21) 성취되었다면 왜 그 때에 일어날 것으로 말씀된 기적들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는 없는가요?

(답)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요엘2:28-32 말씀을 인용한 목적은 마지막 날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에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각 처에서 온 제자들에게 복음이 여러 나라말로 제시되었을 때 요엘서 2:28-29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베드로가 선언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스라엘의 아들과 딸들이, 젊은이와 늙은이들이, 심지어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언할 것인데 그 일이 오순절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예배하기 위해 모인 무리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행 2:19-20에 말씀된 기적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은 요엘서 예언의 결론 부분의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늘과 지상에 나타날 천체의 변화와 격변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때엔 낮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며 지구는 피와 불과 연기로 덮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들이 오순절에 바로 일어날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 2:30-31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은 주 예수께서 주권자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과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그 날이 오기 전 이 모든 예언은 완성될 것임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환언하면, 오순절은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계16장~18장에 나타나 있는 무서운 사건들은 주님의 재림 전에 마지막 날들의 끝을 표시하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로부터 그가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까지 나타난 역사의 드라마는 인간 구원으로 그 마지막 장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B.M.W. 운동

Bus Metro Walking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앞에는 메르사라는 시퍼런 파도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속속 메우고 있다. 이번 홍해작전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17개의 이름을 배우게 된다. 구약에만 30개 이상으로 묘사될 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수없이 많은 것은 어떤 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알아가는 일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함으로 우리는 그를 진실로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자. 다음은 그간 공부한 하나님의 이름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편집부)

6월 6일(토) - 엘로힘 (Elohim) 전능하신 하나님 (창 1:1-2, 26-28)

1. 세상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창 1:1)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은 창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많이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롬 1:20).
 2.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창 1:26-27)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요 우리와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엡 2:10).
 엘로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자.

6월 8일(월) - 엘 엘리온(El El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창 14:17-19)

아브람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중동의 연합군과 싸워 승리했을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영접하기 위해 나왔고(창 14:18-19), 여기서 The most high, 엘 엘리온의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다.
 1.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엘 엘리온의 하나님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영접함은 그에게 평강주시기 위함이었다. 엘 엘리온의 하나님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평화가 아니라 영혼의 지극히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평화, 사라지지 않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2.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엘 엘리온의 하나님
 멜기세덱은 아브람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아브람은 살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큰 위로와 격려와 충만한 회복을 경험했다.
 3.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엘 엘리온의 하나님
 살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람을 축복했고, 또한 하나님께 그에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다(창 14:19).

살과 피를 가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마중 나와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엘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평강의 왕을 자랑하자.

6월 9일(화) - 엘 샤다이(El Shadday) 전능하신 하나님 (창 17:1-8)

아브람은 만사가 형통했다. 재산도 많았고, 조카 롯도 구했고,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잘 됐다. 하지만 한 가지,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다. 99세를 맞이하는 아브람은 어쩌면 자식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창 17:1).
 99세가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즈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다. 샤다이(Shadday)는 어머니의 젖가슴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Shad에서 나온 것으로 ‘엘샤다이’는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선포되는 것이다.
 엘 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묵상하자. 그리고 그 이름을 자랑하자.

6월 10일(수) - 엘 올람(El Olam) 영원하신 하나님 (창 21:22-34)

이민자로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아브람에게는 안전이 늘 걱정이었다. 마침 이때 초강대국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평화협정을 맺자고 했다(창 21:33). 이때 아브람은 하나님을 엘 올람의 하나님이라 부른다.
 1. 하나님의 영원성(욥 36:26)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개념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시므로 받아드릴 뿐이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다.
 2. 하나님의 불변하심(시 102:27)
 엘 올람의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리 변하시고 저리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그는 절대자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3.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품을 거쳐 삼은 자의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을 거쳐 삼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브람을 보라! 그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과 함께, 양보하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 우리 모두도 엘 올람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나는 인생, 복음의 편지로서의 인생을 살자.

6월 11일(목) - 여호와 이레(Jehovah Jireh)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 22:1-2, 9-14)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늘 앞서 가셔서 준비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을까?
 1.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성도(창 22:2)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귀하고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다. 이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아내 사라에게조차 상의하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 모리아산으로 갔다.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다.
 2.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어느덧 이삭이 큰 우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이삭을 택할 것인지를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했다. 하나님은 번제의 제물로 이미 솟앙을 준비하고 계셨다.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지 돌아보자. 인생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자.

6월 12일(금) - 여호와(Jehovah) 스스로 계신 하나님 (출 3:13-15)

모세가 애굽을 도망쳐 나올 때가 40세였고 미디안 땅에서 지낸지가 또 40년, 80세가 된 모세에게는 더 이상의 꿈도 가능성도 생명력도 없었다. 그러나 불현듯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I am that I am, 헬 ego eimi)라고 선포하시며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동족을 구원하라고 하신다.
 1.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독립적인 분이시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그 분은 모든 것의 원인이고 이유이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2.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와 인자와 긍휼과 선하심이 영원무궁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다.
 3.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요 1:1, 14). 그리고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I am that I am 이라고 선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찬양하자.

순교자 주일



130년 전에 척박한 땅 조선에 복음이 들어온 후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피와 기도로 이어져 왔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순교신앙의 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기독교 역사의 박해 현장에서 고통의 순간들을 지내며 삶을 마감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저들의 불신과 조소로 하나님의 교회가 얼룩져 있지 않은가?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 한국교회는 이제라도 돌이켜 순교신앙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백홍준 장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인이며 최초의 장로교 전도사이고 최초의 순교자이다. 1848년 평북 의주에서 출생한 그는 1876년 중국 만주에서 영

국인 선교사 로스 목사를 만나 세례를 받고 기독교 교인이 되었다. 그리고 한 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에 힘써 1887년 '예수성경전서'라는 신약성서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이토록 성서 번역에 힘을 쏟은 것은 어찌하든지 동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백홍준 장로는 1883년에 고향 의주에서 의주교회를 개척하고 자신이 발간한 성경을 가지고 주변 구성, 강계, 삭주 등을 두루 다니며 전도에 힘을 쏟았다. 백홍준 장로는 서울에 올 때마다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압록강 하류 의주에 와서 신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줄 것을 간청하였고 이에 결혼을 빌미로 정부의 허가를 얻어 압록강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는 세례를 받기 원하는 신도 100여명이 압록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감격의 눈

물을 흘렸다. 상상컨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조선이라는 미개한 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친 언더우드 선교사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국땅에서 기독교인이 된 후 조국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죽기까지 오직 예수에 미친 삶을 살다간 백홍준 장로나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압록강 하류에 서있던 100여명의 신도들까지... 저들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우리는 또 다시 오는 세대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백홍준 장로는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1892년 의주에서 체포, 투옥되어 2년간 감옥에서 갖은 고초를 겪다가 1893년에 죽으므로 한국인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편집부)

교구특별찬양

교회, 세상의 소망

박영준 목사(4, 5, 6, 7, 10교구 지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피 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때때로 세상의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 이름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본연의 사명과 복음에 충실 할 때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 다.(벧전2:9)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시작 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형제이며 한 가족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엡4:3-4) 같은 주를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기 원합니다.

저희 4교구, 5교구, 6교구, 7교구, 10교구는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연합하여 백경화 권사님의 지휘와 임아름 자매의 반주로 찬송가 481장(때 저물 어서 날이 어두니), 자유곡(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성도들이 행진할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14 주일 오후 3시 10분 602호에서 그리고 6/21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최종 리허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교구장으로 수고하시는 최치순 장로님(4교구), 홍성주 장로님(5교구), 안인호 장로님(6교구), 이영기 장로님(7교구), 오치열 장로님(10교구)을 비롯하여 각 교구일꾼들과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열심으로 모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가득 매우고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부르며 하늘에 울려 퍼질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며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6일(화) 몽골 국제올림픽위원회 교학위수여식 축사를 하고, 명예총장상 수여를 위해 15일(월) 출국하여 17일(수) 귀국한다. 17일(수) 미래한국500주년 기념식에 참여한다. 18일(목) 새로운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정직한기업만들기' 각 교단 공동대표모임을 소집한다.

■ 주일식당봉사 : 안드레 선교회(6.14) / 베드로 선교회(6.21)

■ 금주의 식사 제공 : 하인선 장로 남태순 권사 가족 (범사에 감사드리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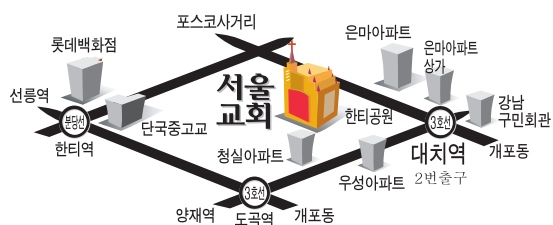
1. 흥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2. 교구별 특별찬양을 통하여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3. 메르스와 가뭄으로 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시고 서울교회 모든 세대들이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애국애족할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본 당 II, III 층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